

고소~한 참기름 냄새 ...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

대인시장 방앗간 옆
클래식 공연장 '라인 무지크'

소박한 공간 작은 무대서
무료 실내악 시리즈 진행
내일 오후 8시 슈만 곡 연주
마스터 클래스 등도 준비

피아노가 놓여 있는 소박한 공간으로 들어서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장 먼저 난다. 인터뷰 하는 내내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가 궁금해 물었더니 이웃한 방앗간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동자를 튼 곳이 시골벽적 시장이라니. 흥미롭고 재미있다. 지난 7월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한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강남대 교수)와 피아니스트 히로타씨 슈지(수원대 교수)역시 연주를 하며 무척 즐거워했다.

요즘 전국 전통시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술시장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시장 곳곳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미술 분야다. 음악의 경우도 밴드 등 대중 음악을 다루는 이들이 다수다.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는 공간은 다른 시장에서는 찾기 어렵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호른, 피아노를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이 결성한 '크리에이티브 그룹 베짱이'(대표 최소영·이하 베짱이)의 이지트 '라인 무지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내악 공연이 열린다.

베짱이가 대인시장에 거점을 마련한 건 지난해 대인시장 '별장' 프로젝트가 진행된 '메이커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인연이었다. 당시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을 지원받으며 '베짱이의 음악놀이'를 진행했다. 클래식 연주회, 수제약기 제작 전시, 악기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메이커스 지원이 끝난 올핸 아예 공간을 자체 임대했고 이름을 '라인 무지크(ReiN Music·순수음악)'로 정했다. 이 공간이 더욱 화려한 건 단원들의 마음가짐이다.



대인시장 '라인 무지크'에서 연주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베짱이'



대인시장 내 자리한 미니 클래식 전용 공연장 '라인 무지크'

흔히 이런 장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클래식 소품을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열리는 클래식 공연에선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너무 알려진' 레퍼토리만 들게된다. 정식 공연장에서 열리는 전문 연주자들의 공연에서조차도 1악장만 연주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베짱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정통 실내악곡 연주를 선택했고, 전 악장을 모두 들려준다.

미니 클래식 리사이틀&실내악 전문 공연장을 표방한 공간은 소박하다. 작은 단을 만들어 무대로 삼고, 피아노를 배치했

다. 이곳저곳 의자를 놓았고 40~50명 정도가 앉으면 맞춤형 공간이다. 베짱이는 자체 기획으로 '대인 실내악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와 피아노 트리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했다. 올 4월에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K136' 등을 연주했고 지난 7월에는 박창수씨가 진행하는 하우스 콘서트 '원먼스 페스티벌(one month festival)'에 참여했다.

물론 아직 길길은 멀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 악장 사이 사이 들락날락 하는 이들이 차분히 앉아 연주를 듣는다.

대인시장 인기 행사인 '별장'을 구경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에 이끌려온 관객은 '로또맞은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아 관람 예절부터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실내악이 어렵다고 하지만 CF나 드라마 등에서 흘러나와 익숙한 작품들도 많아요. 전 악장을 듣게 되면 실내악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실내악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주자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국인 연주자들도 관객들과 행복하게 지내다 갔죠."

베짱이는 1월 현악4중주단 '다움'을 창단한 후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뮤지션들의 다양한 연주회와 함께 마스터 클래스도 열 예정이다.

"시장에 자리한 우리 공간이 기대하는 건 세가지입니다. 우리 단원들은 곡을 심도있게 연주하고, 관객은 조금씩 클래식 음악회와 실내악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전문 클래식 뮤지션들이 연주 공간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 그걸 바라며 기분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8시 열리는 공연에서는 슈만의 '현악 4중주곡 1번'을 들려준다. 11월에도 연주회가 예정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4157-73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루트머지의 '퓨전국악무대'

19일 광주 전통문화관

퓨전국악으로 듣는 '오빠는 풍각쟁이'.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대표 홍운진)가 1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루트머지의 가까운 음악회'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공모한 토요상설공연 무대다.

루트머지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만요(漫謠·희극 대중

가요)' '오빠는 풍각쟁이'를 시작으로 그리스 대중음악 '여행길(아테네의 추억)'을 들려준다. 이어 황진이 한시 '송별소양곡'에 알츠폰 멜로디를 얹은 '달빛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와 '사미인곡'을 25현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준다.

루트머지는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요소의 충돌과 소통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대중적인 전통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가야금병창 박혜진, 해금 김현경, 국악타악 김종일, 건반·작곡 김현화, 드럼 조중현, 재즈보컬 최강, 가야금 한인선, 기획 김혁 씨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대담미술관 '전통 세계를 만나다' 주제 대나무 총회 참석 외국인 100명 초청 디너



19일 전통예술공연 선보여

담양 대담미술관이 19일 오후 6시 '제 10차 세계 대나무 총회'에 참석한 외국인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 '전통(傳統)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기념 디너를 개최한다.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세계성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각종 한국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 송원대 실용예술과 서영 교수

준비됐고 2015년 광주교육감배 전통무 부문에서 '태평무'로 최고상을 수상한 이조은 양(광주예술고등학교 2학년)의 공연도 마련됐다. 이 양이 공연하는 '태평무'는 왕실의 변영과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무로써, 왕 또는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이다.

또 '살풀이' 등 한국 전통무가 공연돼 한국무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015 세계 대나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문의 061-381-00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말들의 풍경'

융합그룹 비빔밥 '말들의 풍경'전

18~30일 은암미술관...언어 유희와 상상의 이미지

융합그룹 '비빔밥'의 '말들의 풍경'전이 18~30일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비빔밥팀은 이번 전시에서 '말들의 풍경'을 음악·무용·회화·영상 등 각각 다른 장르로 풀어낸다.

강운 작가는 한글창체 원리와 구조를 통해서 언어 유희와 상상력 넘치는 '말들의 풍경' 기본 이미지들을 디자인했고 김현옥 작가는 작곡과 연주를 통해 음악적인 '말들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또 이숙영 작가는 무용수 박주옥씨와 발레동작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 다양한 안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박상화 작가와 대만 미디어아티스트 신정 작가는 전시장 내부에 스크린 20여 개를 설치해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전시 개막일인 18일 오후 6시에는 '지역융합예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박주옥씨의 오프닝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비빔밥팀은 2012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숲숨쉬 그리고 집'을 선보였고, 2013년 평창국제비엔날레, 등 다양한 융합전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